

생활권 문화공간으로 예술 확장하다

전북도립미술관, 12월 4일까지 작은 도서관 찾아가는 공공예술 프로그램 ‘예술 한 페이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달간 도내 생활권 내 작은 도서관을 직접 찾아가 전시와 해설을 결합한 공공예술 프로그램 ‘예술 한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는 미술관의 소장품을 도서관 공간으로 확장해 주민이 책을 읽듯 작품을 감상하고, 예술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전시는 윤재우 작가의 정물화 시리즈로 구성되며, 고풍 글마루 작은 도서관, 부안 청우 작은 도서관, 임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작은 도서관, 장수 작은 도서관,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등 5개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윤재우 작가는 일상의 사물을 단순화하면서도 직관적인 색채로 생명력을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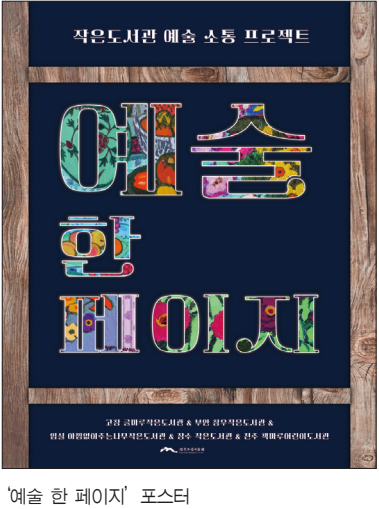
진하는 회화적 감성을 보여준다. 그의 화면은 대담한 색채 감각과 자유로운 구성으로 강렬한 시각적 리듬을 만들어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익숙한 사물 속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게 한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색채의 에너지가 도서관 공간 속에서 일상의 풍경을 새롭게 읽는 시각적 경험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미술관에서 전시해설자원봉사자(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해설 인력이 각 도서관에 파견돼 ‘그림을 책처럼 읽는’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설과 대화 중심의 참여형 감상 방식을 통해 주민, 아동, 가족이 함께 예술을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관의 독서문화와 미술감상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 문화 확산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며 미술관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예술 한 페이지’ 포스터

군산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 개최

12월 18일 군산시립교향악단 · 시립합창단 합동연주회

가는 해를 아쉬워하고 오는 새해에 설레는 12월, 군산시립예술단이 ‘2025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7시 30분,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군산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함께 꾸미는 합동 무대로, 한 해 동안 보내준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음악으로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풍성한 합창의 화음이 어우러져 감동과 환희의 무대를 선보인다.

여기에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이 협연자로 함께한다. 성재창 연주자는 독일 레겐스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핀란드 국립 오페라 부수석, 충남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동아음악콩쿠르 1위를 비롯해 제

주국제관악콩쿠르, 일본 관악기타악기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음악회의 플레이리스트 면면도 화려하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대표 클래식인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트럼펫의 화려한 기교와 오케스트라의 생동감이 돋보이는 〈랩소디 인 블루〉, 익숙한 캐럴 선율로 새해의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군산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는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입장료는 5,000원이다. 티켓은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현장 예매는 공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1층에서 가능하다.

/군산=김민호 기자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옥 개방 청년 예술가 ‘열린 전시공간’ 활용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학교 예술대학과 함께 공단 본부 잔디광장에서 ‘야외 조각전’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공단 본부 시설을 개방해 전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조각전에는 15명의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제작한 16점의 작품은 내년 초까지 공단 본부 잔디광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공모 시작

전주국제영화제(공동 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5일부터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품 부문은 경쟁 부문인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과 △비경쟁 부문, 그리고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영화 부문 등 총 4가지다.

공모 일정은 단편영화의 경우 2026년 1월 5일까지며, 장편영화는 2026년 1월 19일까지다. 상영시간을 기준으로 40분 미만은 단편, 40분 이상은 장편으로 구분하며, 보다 원활한 접수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0일 빠르게 공모가 마감된다.

출품 자격은 2025년 1월 이후 제작된 영화로, 국내 상영 전적이 없는 코리안 프리미어(국제

최초 상영) 또는 그 이상의 프리미어 조건을 갖춘 작품이다. 한국경쟁 부문은 감독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 연출작만 출품할 수 있으며, 한국단편경쟁·비경쟁·지역공모는 연출작 수 제한이 없다.

지역공모 부문은 전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는 지역 영화인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영화문화의 활성화와 지역 창작자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접수된 작품 중 일부는 경쟁 부문인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또는 비경쟁 부문인 ‘코리안시네마’에 선정돼 초청될 수 있다.

출품은 전주국제영화제 출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국립공원 사진전
2025.11.4(목) ~ 11.7(일)

은혜롭고 ‘덕(德)’이 가득한 덕유산 속으로!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국립공원 사진전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사진전이 지난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은혜롭고 덕(德)이 가득한 덕유산속으로!”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특별 사진전, 국회서 개막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사진전이 지난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은혜롭고 덕(德)이 가득한 덕유산속으로!”란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국립공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됐으며 오는 7일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전시에는 산악사진가로 무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이윤승, 박봉진, 김경숙 등 3명의 작가가 참여해 덕유산의 사계절과 생태,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세 작가는 각기 다른 시선으로 덕유산의 장엄함과 섬세함을 포착해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개막식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 덕유산 사무소 안길선 소장 등 주요 인사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진전은 덕유산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문화재단, 이팝프렌즈 예술상 수상후보자 공모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이팝프렌즈 예술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상은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에 참여한 시민과 기업의 후원금을 재원으로,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유망 예술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 제도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시상식은 12월 18일 ‘제5회 이팝프렌즈 후원인의 밤’ 행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상은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전통 분야를 포함한 기초예술 분야 예술인 3인을 선정하는 ‘예술인상’과 우수한 기획력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기획자 1인을 선정하는 ‘기획자상’이다.

수상 후보 자격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전주에서 창작 및 발표 활동을 활발히 이어온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업 문화예술인 및 기획자에게 주어진다.

최종 선정된 4인의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 원과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상패가 수여된다.

후보자 추천은 전주 소재 협·단체 및 기업



올해의 이팝프렌즈 예술상 수상자를 추천하세요.

이팝프렌즈 예술상 수상후보자 공개후원
2025년 11월 4일(목) ~ 21일(일) 1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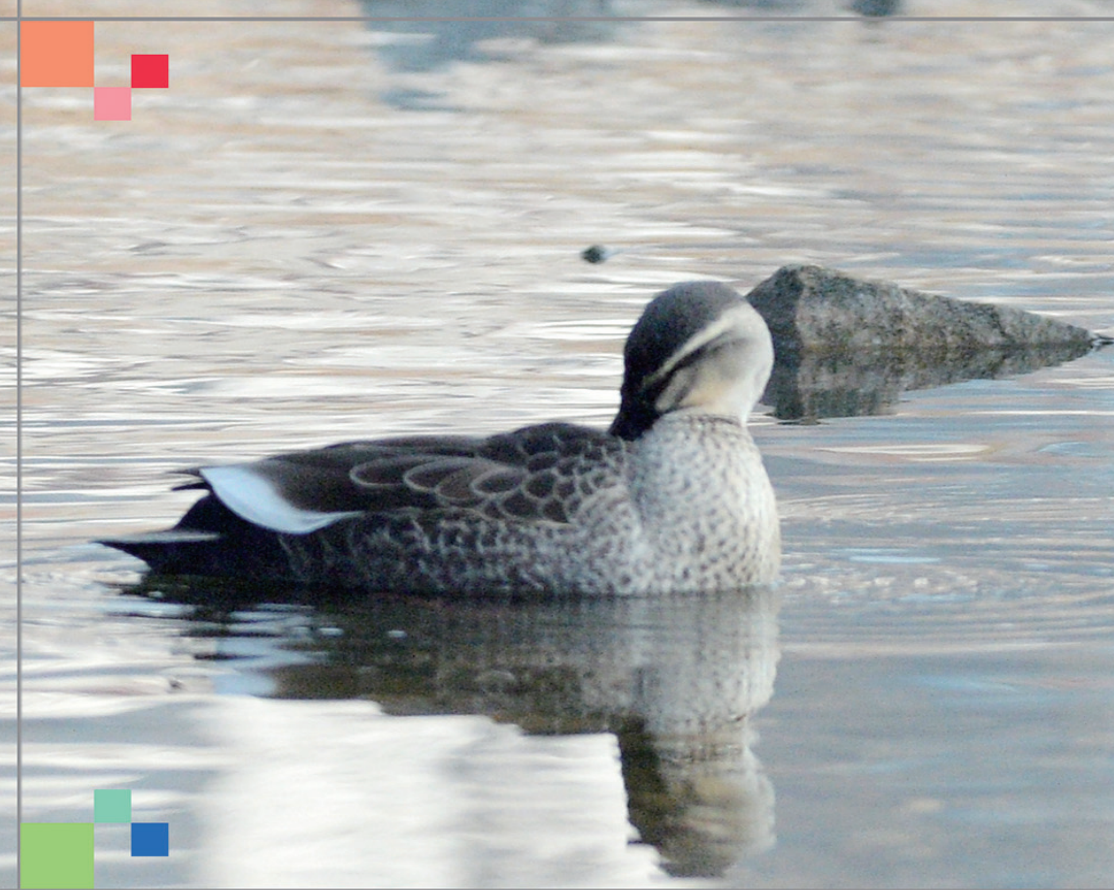
등 ‘단체’ 또는 3인 이상의 ‘개인’이 추천동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추천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수상 후보자 추천서 △수상 후보자 공적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의 필수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서류는 이메일(ardefine@jrf.or.kr)로 제출하거나, 우편(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경영지원부)으로 원본 서류를 보내면 된다.

이후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예술(기획) 활동의 적구성 및 지속성, 지역사회 기여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